즉시 배포용: 5/8/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재진입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서밋 발표

재진입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세 차례의 서밋 중 첫 번째를 뉴욕시에서 개최

다음 서밋은 뉴욕주 서부 지역과 주도 지역에서 개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전과자의 이행 및 사회 복귀를 돕는 재진입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세 차례의 "일자리 서밋"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뉴욕시에서 개최된 첫 번째 서밋에는 직업 훈련, 알선 및 기능 개발 등 다양한 재진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전문가 약 7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밋은 전과자들이 취업하여 지역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이 되도록 재진입 전문가가 돕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재진입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형사 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더 안전하고 튼튼한 뉴욕주를 위한 토대를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밋은 주의 다음 3개 기관들의 합동 이니셔티브입니다: 형사정의과, 교정커뮤니티감독부, 노동부. 뉴욕주의 19개 카운티 재진입 태스크포스들은 사회에 복귀하는 전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율하고 관리하도록 고안된 재진입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 교부금 약 3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주지사 법률고문 Alphonso Davi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과자가 주 교도소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돈벌이가 되는 취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범율을 줄이는 것이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서밋은 전문가들에게 그러한 똑같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Cuomo 지사의 사회 재진입 재통합 협의회는 주의 법규를 검토하여 구직자들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David씨는 서밋에서 기조 연설을 하였습니다. 법률고문으로 선임되기 전에 그는 Cuomo 지사의 민권 담당 차관 및 법률고문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그것은 주에서는 사상 최초의 직위였습니다. 그 역할에서 그는 전주의 민권 및 노동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법률, 정책, 의회 및 운용을 담당하였습니다. Cuomo 지사의 노동 담당 차관으로 봉직하는 Elizabeth de Leon Bhargava도 참석하였습니다.

John Jay 형사사법대학이 개최한 오늘의 서밋은 Bronx, Kings (Brooklyn), New York (Manhattan), Nassau, Orange, Rockland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의 재진입 태스크포스와 협력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두 차례의 일자리 서밋은 다음 태스크포스 카운티의 전문가들을 위해 다가오는 달들에 주도 지역과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Albany, Broome, Dutchess, Erie, Monroe, Niagara, Oneida, Onondaga, Rensselaer, Schenectady 및 Ulster.

참석자들은 재진입 취업, 전과자의 취업 준비 방법, 일자리 개발 및 알선을 위해 적합한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 짝짓기의 난제 및 성공에 대한 패널 토의에 참가하였습니다. 형사정의과의 보호관찰교정대안실이 서밋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실은 재범율을 줄이고 따라서 커뮤니티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19개 카운티의 재진입 태스크포스에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형사정의과 부과장 Michael C. Gre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주이고 어떤 큰 주의 투옥률보다 가장 낮지만 우리는 투옥과 범죄를 계속 줄여야 합니다. 전과자들이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전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스크포스들은 모든 관련자들을 위한 긍정적 결과, 즉 범죄 감소, 피해자 감소 및 투옥 감소를 목표로 하여 대중 인식 및 교육 캠페인을 통해 전과자 및 그 가족들과 협력하며 인지 행동 개입 및 취업 중심 목표 같은 증거 기반 관행을 사용합니다.”

교정커뮤니티감독부 부장 대행 Anthony J. Annucc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전과자들을 위한 취업 기회를 의논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들을 모을 기회를 주신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취업을 확보할 능력은 성공적 재진입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일뿐만 아니라 투옥 순환을 줄이는 것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뉴욕주의 고용주 고용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기타 Work for Success 같은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은 뉴욕주가 공공 안전에 대해 진지하며 전과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직면하는 난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나타냅니다.”

노동부 장관 대행 Mario J. Musoli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서밋은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력을 시작하거나 또는 많은 경우에 다시 시작하는 전과자들도 커뮤니티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와 주정부의 우리 파트너 기관들은 전과자가 뉴욕주의 번영하는 경제에 다시 합류하도록 돕기 위한 많은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19개 카운티 각각의 재진입 태스크포스의 공동회장은 카운티의 선출직 관리 대표와 주 교정커뮤니티감독부의 대표입니다. 주 교부금은 각 카운티 태스크포스 코디네이터를 위한 예산과 달리는 불가능할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제공합니다. 태스크포스는 법집행 기관 대표, 커뮤니티 감독, 사회복지, 정신건강, 피해자 옹호 및 약물 오용 치료 제공자들을 포함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